

논문

# 세계 지성계 속의 왕후이 사상

## - 저술 번역 양상에 대한 고찰

송인재\*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저술 번역으로 본 왕후이 사상의 세계화 양상
- III. 왕후이 사상의 형성과 그에 대한 판단
- IV. 담론의 생산적인 형성과 소비를 위하여

### 한글초록

사회주의 중국의 체제전환과 전망이 세계적 관심 대상이던 90년대 후반 왕후이는 중국을 세계자본주의 운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규정하며 중국과 세계 지성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이때부터 왕후이는 일명 '신좌파'로 불리기 시작했다. 왕후이는 최신의 서양 이론과의 접촉 위에서 근대성과 세계체제, 그리고 중국을 보는 견해를 형성했다. 왕후이 사상은 90년대 중후반에는 주로 이슈의 중심에 있는 논문이 번역되고 21세기 들어서서는 독자적인 저서가 지속적이고 다국적으로 번역되면서 세계지성계로 확산되었다. 왕후이의 사상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 근거해서 초기부터 중국과 그 외 국가에서 '신좌파'라는 정파적 개념 아래서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이해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왕후이 사상이 가진 고유한 주장과 더불어 그 주장의 토대에 있는 학술적 배경도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다루어졌다. 이를 통해 왕후이의 현실비판과 창조적 미래 설계에 대한 모색은 공공성과 학술성을 겸비한 사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이해는 담론의 학문적 엄밀성에 대한 요청, 같은 세계를 살고 있다는 연대의식,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고정관념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 작동한다. 따라서 세계 지성계 속에서 왕후이는 ‘신좌파’로서의 부상과 전향이라는 정파적 판단을 넘어, 세계 속의 중국, 아시아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한 중국의 역사와 현실, 미래에 대한 독창적 견해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통해 세계사적 현실을 고민하는 사상이라는 면모를 갖추어간다. 향후 관련담론도 특정 지역이나 정파의 이해를 벗어나 공존하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형성될 때 보다 생산성을 떨 것이다.

#### 주제어

왕후이, 세계 지성계, 번역, 신좌파, 지식인, 공공성, 학술성

## I. 들어가며

본 논문은 현대중국의 지식인 왕후이 사상의 형성과정과 의미를 세계지성계의 맥락 속에서 규명한다. 특히 그의 사상을 담은 저술이 중국 밖에서 번역, 출판, 소개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왕후이를 소개한 각국 지식인의 판단을 고찰하면서 그 양상을 그려보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80년대 석, 박사 학위논문에서 루쉰문학을 다루면서 연구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은 왕후이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루쉰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사상사와 현실체제로 관심을 돌렸다. 그 결과 90년대 중후반에 중국의 사상 상황을 비평하는 글<sup>1)</sup>을 발표한 뒤 일명

‘중국 신좌파’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중국의 현대사, 체제전환에 관심을 갖는 타국 지식인, 세계체제 비판의 입장에서 중국혁명에 동정적인 입장을 갖는 해외 운동가들이 주목하면서 왕후이는 ‘세계적’ 지식인의 반열에 올랐다. 왕후이에 대한 해외의 관심은 그의 글에 대한 소개로 이어졌다. 더 나아가 왕후이와 해외 지식인이 직접 교류와 대화를 하고 왕후이가 연관된 주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왕후이의 사상을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닌 세계 지성사의 문제의식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네트워크 속에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금까지 왕후이에 대한 이해는 그 개인의 사상을 특정한 이념적 지형도 속에 위치 짓거나 이념적 잣대에 의한 가치평가를 하면서 이루어졌다.<sup>2)</sup> 그러나 왕후이가 한 나라에만 시야

- 
- 1) 汪暉, “當代中國思想狀況與現代性問題”, 『天涯』, 第5期(1997); 汪暉 지음, 이옥연 옮김, “중국사회주의와 근대성 문제: 개방 이후의 사상조류”, 『창작과비평』, 겨울호(1994).
  - 2) 이와 관련해서 왕후이를 자유주의 논쟁의 구도 속에서 ‘신좌파’ 소개한 연구로 한국에는 이옥연, “중국 지식계의 새로운 동향 — ‘신좌파’를 중심으로”, 『실천문학』, 가을호(1999); 박승현, “세계화와 90년대 중국 지식인의 대응 — ‘자유주의’와 ‘신좌파’를 중심으로”, 『철학탐구』, 제19집(2006); 황희경, “현대 중국의 신좌파와 자유주의 논쟁”, 『동아시아역사연구』, 제6집(1999); 이희옥,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중국 근대성의 반사(反思)”, 『당대비평』, 11(2000); 황희경 “현대 중국의 자유주의 이해—비판적 지식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12권1호(2001); 임우경, “세기말 중국 사상계의 분화 —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연세학술논집』, 제31집(2000), 박영미, “계몽과 현대성—중국 신좌파의 현실인식과 지향”, 『한국철학논집』, 제28집(2010); 조경란, “중국에서 신좌파와 비판적 지식인의 조건: 왕후이의 ‘중국모델론’과 21세기 지식지형의 변화”, 『시대와 철학』, 제24권1호(2013). 일본에는 宇野木洋, “中國における“新左派”思索と營爲—汪暉の‘近代’省察と“新自由主義”批判”, <http://www.ritsumeai.ac.jp/acd/cg/law/lex/kotoba05/unoki.pdf>(검색일: 2007.3.19). 미국에는 Arif Dirlik, China's Critical Intelligentsia, New Left Review 28, July-August 2004, <http://newleftreview.org/?page=article&view=2520>(검색일: 2007.3.1일); China's New Leftist, The New York Times 2006. 10. 15, <http://www.>

를 두고 고립된 정치적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외 이론을 학습하고 해외 지식인과 교류하며 그 과정에서 연관된 주제에 관한 목소리를 낸 이상 정파적 라벨을 부여하는 평가는 단편성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왕후이의 사상은 왕후이의 사상에 관심을 갖는 해외 지성사 속의 흐름과 접속하고 그 안에서 일정한 지적 교류를 거쳐 그 흐름의 내포를 풍부히 해왔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90년대는 탈냉전·탈이념의 시기이면서 신자유주의라는 체제에서 새로운 비판이론이 태동할 필요성이 제기된 시대다. 아울러 근대적 혁명의 이론과 실천을 대신하는 행동과 사유 노선이 요구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왕후이의 중국서사와 지역담론, 민주주의 위기론, 대안체제론 등은 그런 노력의 산물이며 세계 지성계를 연결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왕후이는 중국의 역사와 현실을 통찰하고 세계체제에 대한 나름의 비판과 전망을 제기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왕후이 사상의 형성과 세계적 확산을 세계 지성계와의 접속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한다.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유효한 해석과 개입을 실현할 수 있는 담론의 생산적 형성과 소비를 위한 방향을 가늠하겠다.

## II. 저술 번역으로 본 왕후이 사상의 세계화 양상

본 장에서는 왕후이의 저서 또는 논문이 해외에서 번역·출판되는

---

nytimes.com/2006/10/15/magazine/15leftist.html?\_r=1&oref=slogin (검색일: 2007. 3.19); Francis Mullhern, *Lives On The Left: A Group Portrait*, Verso, 2011 등이 있다. 90년대부터 왕후이 사상을 관통하는 주된 문제의식을 근대성으로 파악하고 근대성 담론의 각도에서 왕후이를 소개한 경우도 여럿 있다. 이선옥, “왕후이의 서구 현대성 이론 반성과 그 의미”, 『중국문학』, 제69집(2011); 김창규, “感性的 近代 摸索을 위한 初探 - 汪暉의 중국 현대성 담론 소개”, 『감성연구』, 제11집(2015).

양상과 그 특징을 살펴본다. 왕후이가 세계 지성계에 접속하는 경로에는 직접 해외 연구기관, 연구자, 독자와 접촉하는 것 이외에 그의 사상이 소개되거나 글이 번역되는 방식이 있다. 왕후이의 글은 언어적 측면에서 다양한 컨텍스트 속에서 재생산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에 출판된 왕후이 저서의 저자소개란에는 그의 글이 영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되었음을 언급한다.<sup>3)</sup> 왕후이의 사상은 글로써 뿐만 아니라 왕후이의 해외 이동을 통한 직접 접촉을 통해서도 해외 지성계와 접속했다.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잠시 홍콩에 다녀온 뒤 1992년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방문연구원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일본의 각 대학에서 방문학자나 객원교수를 지낸 경험을 쌓았고, 해외강연, 해외학자와의 대담도 다수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은 해외의 사상을 학습하는 경로이기도 했고 자신의 사상을 해외에 알리는 기회도 되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강연이나 대담 등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소개나 번역이 왕후이의 사상이 소비되는 컨텍스트의 영향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저자가 직접 발언을 하지 않고 왕후이의 사상이 이미 주어진 텍스트의 형태일 때는 그것이 위치한 컨텍스트가 그 형상을 보다 주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단행본의 형태로 왕후이의 저술이 해외에 번역·소개되는 양상을 파악했다. <표 1>에서는 우선 단행본 형태로 출간된 왕후이의 중국어 저술이 타언어로 번역된 사례를 원저의 출판연도 순으로 정리했다.

<표 1>에서는 왕후이의 저서 6권이 중국, 홍콩 등에서 출판되어 한국, 이탈리아,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김택규 옮김, 『죽은 불 다시 살아나』(삼인, 2003); 왕후이 지음, 송인재 옮김, 『절망에 반항하라』(글항아리, 2014).

〈표 1〉 저서의 완역 또는 발췌역(저서→저서)

	도서명(연도)			비고
1	反抗絶望(중국, 1990; 2008 증보판)			
	1	한국	절망에 반항하라(2014)	완역
2	死火重温(중국, 2000)			
	1	한국	죽은 불 다시 살아나(2005)	완역
3	現代中國思想的興起(중국, 2004; 2008 재판)			
	1	이탈리아	Impero o Stato-Nazione? La Modernita intellettuale in Cina(2009)	발췌
	2	일본	近代中国思想の生成(2011)	발췌
	3	미국	China from Empire to Nation-State(2014)	일부
	4	한국	현대중국사상의 흥기(?)	완역, 미출간
4	去政治化的政治(중국, 2008)			
	1	미국 영국	The End of the Revolution: China and the Limits of Modernity(2009)	부분 교체
5	亞洲視野: 中國歷史的敘述(홍콩, 2010)			
	1	미국	The Politics of Imagining Asia(2010)	부분 교체
	2	한국	아시아는 세계다(2011)	완역
	3	일본	世界史の中の中国—文革・琉球・チベット(2011)	발췌
	4	중국	東西之間的‘西藏問題’(2011)	1장
	5	이탈리아	La Questione Tibetana tra Est e Ovest(2011)	1장
	6	싱가포르	跨體系社會: 中国歷史中的民族, 區域與流動性(2011)	1장
6	短二十世紀: 中國革命與政治的邏輯(홍콩, 2015)			
	1	일본	世界史のなかの東アジア—台湾・朝鮮・日本(2015)	발췌
	2	한국	단기 20세기(가제, 2016 예정)	완역, 번역중
	3	미국	China's Twentieth Century: Revolution, Retreat and the Road to Equality(2016)	발췌

출판시기를 보면, 2번의 2000년도에 출판된 『죽은 불 다시 살아나(死火重温)』가 2005년에 번역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2008년 이후에 해외 번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번역 형태도 6종 중 한국에

서 출판된 다섯 종만 완역했을 뿐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발췌번역이 되거나 일부 장을 다른 논문으로 대체하는 형식으로 소개되었다.

3번의 『현대 중국사상의 흥기(現代中國思想的興起)』는 그 내용뿐 아니라 독자를 압도하는 4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도 유명한데 책 내용 전체에 대한 소개는 그리 충실하지 않다. 이탈리아, 미국 등 서양어 번역판은 서론만 번역한 것이다. 영어판과 이탈리아어판의 제목은 공히 제국과 민족국가라는 두 가지 지역체제를 대조하면서 역사 속의 중국에 어떤 성격을 부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일본어판은 개정판 서문, 서론, 총론을 번역하고 보론 성격으로 『아시아의 시야(亞洲視野)』<sup>4)</sup>의 맨 마지막장인 「트랜스시스템 사회와 방법으로서의 지역」을 덧붙였다. 『아시아의 시야』가 출간된 2010년 이후 출판되면서 해당 글의 성격이 『현대 중국 사상의 흥기』와 연관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sup>5)</sup> 비록 일본어판에서는 기본 정보로 전체 목록을 수록하고 있지만 대체로 저서에 담긴 왕후이의 집필의도 정보만 전달하는 수준이다.

2010년 초 홍콩에서 출간된 5번의 『아시아의 시야』는 아시아 상상의 정치, 티베트 문제, 오키나와 문제 등 아시아에 대한 담론이 수록되어 있는 책으로서 번역서 수가 가장 많다. 한국에서는 완역, 미국에서는 마지막 장인 트랜스시스템 관련 장을 90년대에 발표된 막스 베버와 근대성 문제에 관한 논문으로 대체하고 전반적으로 원서의 구성에 일치되어 구성되었다. 일본어판은 오키나와, 티베트 관련 글 두 편만을 발췌하고 2007년에 발표한 탈정치화 된 정치를 주제로 한 논

4) 이 글에서는 한국어판과 원서를 구분하기 위해 한국어판 제목 대신 원서의 제목을 사용한다.

5) 石井剛, “智識生産・主體性・批評空間——汪暉(現代中國思想的興起)日文簡本‘譯者解説’”, 『開放時代』, 第2期(2007), <http://www.opentimes.cn/bencandy.php?fid=323&aid=1538> (검색일: 2016.4.12)

문을 맨 앞장에 둔 구성을 보였다. 따라서 2008년에 출간된 『탈정치화된 정치(去政治化的政治)』의 핵심문장만을 뽑아 『아시아의 시야』 일부와 결합시키는 형식을 띤다. 남양이공대 중화언어문화센터(中華語言文化中心)에서는 2009년 왕후이를 방문교수로 초청한 후 강연록 시리즈의 형식으로 티베트 관련 장과 트랜스시스템사회 관련 장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sup>6)</sup> 『아시아의 시야』에서 첫 장인 「아시아 상상의 정치학」과 호응을 이루는 것이자 아시아에 대한 성찰을 이론화한 트랜스시스템사회 관련 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정세와 관련된 티베트문제를 책의 핵심 내용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 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베이징올림픽과 연관되어 시의성을 띠는 사건인 2008년 티베트 시위를 다룬 「동서 사이의 '티베트 문제」는 대륙에서 간체자본으로 출간되어 또 다른 중국어판본이 되었고 이탈리아에서도 출간되었다.

「아시아 상상의 정치학」과 「대상의 해방과 근대에 대한 질의」 두 장은 『아시아의 시야』 출간 이전에 발표된 것이고 『탈정치화된 정치』(2008)에도 수록된 것이어서 엄밀히 말해서 새로운 글이라 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발췌번역은 왕후이의 사상적 행보의 최신 형태를 가능한 선명하게 소개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015년 여름에 출간된 『짧은 20세기-중국의 혁명과 정치의 논리(短二十世紀：中國革命與政治的邏輯)』는 『아시아의 시야』와 마찬가지로 원서 출판과 큰 시간적 편차를 갖지 않고 번역되었다. 완역을 진행 중인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미국에서는 발췌·번역되는데 두 판본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일본어판 경우는 총11개 장 중 대표성의 위기, 한국전쟁, 대만 문제를 소재로 한 3개 장을 선택했고, 영어판은

6) [http://www.cclc.hss.ntu.edu.sg/Chi/Publications/TLSPublicLectureSeries/Pages/TLS\\_Volume3\\_WH.aspx](http://www.cclc.hss.ntu.edu.sg/Chi/Publications/TLSPublicLectureSeries/Pages/TLS_Volume3_WH.aspx).



대만, 한국, 양안관계 등 지역사적인 주제는 모두 제외하고 혁명, 대표성의 위기, 뉴푸어, 평등 등 정치 담론을 발췌 기준으로 삼았다.

한편, 왕후이의 루쉰연구를 다룬 『절망에 반항하다(反抗絶望)』는 한국에서만 완역이 되었을 뿐 다른 나라에서 출판된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2008년 증보판에는 루쉰연구가 왕후이가 연구자로서 첫발을 내딛고 명망을 얻게 된 기반인 동시에 사상가로 활동하는 기간의 화두인 근대성을 성찰하는 계기로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부록으로 실린 인터뷰에서는 루쉰을 ‘근대에 맞서는 근대’의 전형으로 논하고 있으며, 2008년판 후기에서는 일본 지식인 이토 토라마루(伊藤虎丸)와의 교감을 통해 심화된 귀신론, 마루야마 노보루와(丸山昇)의 교감을 통해 심화된 좌파적 사유 등을 서술하는 한편 『절망에 반항하다』에서 다루지 않은 30년대 루쉰의 문화정치에 대한 연구의욕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번역서 목록은 일본이나 서양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을 낳게 한다.

다음으로 <표 2>에는 왕후이가 발표한 논문을 모아 편역서를 출판한 경우를 정리했다.

<표 2> 편역(논문—저서)

수록논문	역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當代中國的思想界狀況與現代性問題」(1997)</li> <li>• 「新自由主義」의歷史根源及其批判—再論當代中國的思想界狀況與現代性問題」(2001)</li> <li>• 「亞洲想象的譜系」(2002)</li> </ul>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한국,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當代中國的思想界狀況與現代性問題」(1997)</li> <li>• 「新自由主義」의歷史根源及其批判—再論當代中國的思想界狀況與現代性問題」(2001)</li> </ul>	China's New Order: Society, Politics, and Economy in Transition(미국, 영국, 2003) Il Nuovo Ordine Cinese. Societ, po-

수록논문	역서명
	litica ed economia in transizione(이탈리아, 2006)
	El Nuevo Orden de China, Sociedad, Política y Economía en Transición(스페인,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當代中國的思想界狀況與現代性問題」(1997)</li> <li>• 「新自由主義」의歷史根源及其批判-再論當代中國的思想界狀況與現代性問題」(2001)</li> <li>• 「亞洲想象的譜系」(2006)</li> <li>• 「偉伯與中國的現代性問題」(1994)</li> <li>• 「地方形式, 方言土語與抗日戰爭 時期」民族形式」的討論」(1996)</li> </ul>	思想空間としての現代中国(일본,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再問「什麼的平等」-論當代政治形式與社會形式的脫節」(2012)</li> </ul>	Die Gleichheit neu denken: Philosophie und Politik XII(독일,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國崛起的經驗及其面臨的挑戰」(2010)</li> <li>• 「去政治化的政治, 霸權的多重構成與六十年代的消失」(2007)</li> <li>• 「重慶事件-密室政治と新自由主義の再登場」(2012)</li> <li>• 「代表性的斷裂與「後政黨政治」」(2014)</li> </ul>	탈정치 시대의 정치(한국,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兩洋之間的文明-2015年6月29日喀什大學演講」(2015)</li> <li>• 「代表性的斷裂」(2014)</li> <li>• 「再問「什麼的平等」-論當代政治形式與社會形式的脫節」(2012)</li> <li>• 「兩種新窮人及其未來」(2014)</li> <li>• 「毛主義運動」의幽靈(2016)</li> <li>• 「記念碑を越える、あるいは真知のはじまり」(?)</li> </ul>	世界史のなかの世界-文明の対話、政治の終焉、システムを越えた社会(일본, 2016)

번역은 최근에 독일과 한국에서 출간된 판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단일저서 번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08년까지 진행되었다. 즉 현재까지 왕후이 저서 번역의 역사에서 2008년이 편역에서 단일저서 번

역으로의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 번역된 논문들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1997년에 발표된『현대 중국 사상계의 상황과 근대성 문제(當代中國的思想界狀況與現代性問題)』와 그 후속편으로 2001년에 발표된『신자유주의의 역사적 기원과 그에 대한 비판(新自由主義的歷史根源及其批判)』(2001)이다. 2003년 한국어판과 영어판, 2006년 이탈리아어판, 2008년 스페인어판, 일본어판에서 공통적으로 두 글을 다루었다. 서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중국의 새로운 질서’라는 의미의 타이틀을 내걸고 90년대 중국에서 자유주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왕후이가 ‘신좌파’의 대표주자로 지칭되는 계기인 「현대 중국의 사상 상황과 근대성 문제」와 그 후속편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체제전환 논의를 통해 왕후이를 조망하려 하는 의도를 보인다. 특히 영어판에서는 89년의 상황을 다룬 후속편을 앞에 배치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어판은 아시아 상상의 계보를 추가하고 일본어판은 아시아 상상의 정치, 베버와 근대성 문제, 항일전쟁기 민족형식 논쟁을 추가했다. 한국어판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과 아시아 담론의 맥락에서 왕후이를 소개하고 일본어판은 여기에 근대성, 중국적 특성으로 문제를 확장하면서 현대중국을 사상공간으로 묘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한국어판에서는 글의 비중은 80년대 중국의 사상적 상황과 신자유주의에 관한 논의가 높음에도 ‘새로운 아시아’를 표제로 내세우고 있는 점에 눈에 띈다.<sup>7)</sup> 본 논

7) 한국에서 “當代中國思想狀況與現代性問題”에 대한 관심은 각별하다. 무엇보다 이 글의 초안은 중국에서보다 앞선 시기인 1994년에 발표되었고 완성본은 2000년대 한 번 번역되었다. 汪暉, “중국사회주의와 근대성 문제: 개방 이후의 사상조류”, 『창작과 비평』, 겨울(1994); 汪暉 지음 이희옥 역, “세계화 속의 중국, 자기 변혁의 추구: 근대와 근대 비판을 위하여” 1, 『당대비평』, 10(2000); “세계화 속의 중국, 자기 변혁의 추구: 근대와 근대 비판을 위하여” 2, 『당대비평』, 11(2000). 그 후 단행본 완역판과 편역서에도 재등장한다. 김

문에서 작성한 리스트에 따르면 세계 최초의 비중국어판 왕후이 저서라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가 ‘동아시아의 비판적 지성’ 시리즈의 일환으로 출판되었고, 시리즈를 기획한 주체가 한국에서 동아시아 담론을 생산·발산하는 ‘창작과 비평’ 그룹이었음을 감안하면 책의 표제에 기획주체의 성향과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편역은 일련의 『아시아의 시야』 번역서가 출간된 이후 다시 등장한다. 독일어판의 경우 2012년에 발표된 평등 관련 논문 「어떠한 평등인가를 다시 묻는다 - 현대의 정치형식과 사회형식의 탈구에 대하여(再問“什麼的平等”-論當代政治形式與社會形式的脫節)」와 이에 대한 독일학자의 논평, 관련 주제로 진행된 대담으로 구성되어 평등에 대한 왕후이의 문제의식을 현대정치철학의 주제로 분류하고 있다. 2014년의 한국어판은 ‘현대 중국의 사상과 이론’ 시리즈의 일환으로 기획자들이 아직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않은 글들을 선정해서 모아낸 것이다. 여기에는 탈정치화 담론 관련 논문 두 편과 현대중국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논한 논문 두 편을 수록했다.

글의 주제 측면에서 논하면, ‘탈정치화 된 정치’는 2008년 중국에서 출판된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그런데 2008년판 『탈정치화 된 정치』<sup>8)</sup>에서는 탈정치화 정치를 다룬 글은 한편이고 근대성, 베버, 아시아 담론, 『현대중국사상의 흥기』의 내용 일부를 다시 실었을 뿐 내용이 새롭지 않다. 왕후이의 문제의식은 후에 대표성의 위기, 포스트 정당정

택규 역, 『죽은 불 다시 살아나』(서울: 삼인, 2005); 이육연 외 옮김,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창비, 2003) 참조.

8) 왕후이 지음, 성근제, 김진공, 이현정 옮김, 『탈정치시대의 정치』(돌베개, 2014). 이 책에서는 대의제가 허울뿐인 형식이 된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유의미한 참조 점으로 왕후이의 견해를 제시한다. 그러나 여전히 왕후이를 ‘신좌파’ 이론가로 규정하고 있다.

치에 맞추어지는데 한국어판이 이 점을 반영하면서 오�히려 중국어판보다 충실하게 저자의 문제의식을 더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다만 평등 담론을 제외했다는 점에서 평등을 정치 담론의 중심 주제로 다룬 독일의 경우와 다르다. 대표성의 위기는 일본에서는 단행본 번역인 『세계사 속의 동아시아(世界史のなかの東アジア-台湾・朝鮮・日本)』(2015)에 수록되어 수용 방식의 편차를 보인다.

2016년 출판된 일본의 편역서도 한국과 유사한 관심을 보인다. 이 책에는 동서양 문명, 대표성, 평등, 뉴푸어(New Poor), 남아시아의 사회주의운동 등과 관련된 왕후이의 강연, 논문, 타인의 단행본에 써준 서문 등이 실려 있다. 이중 뉴푸어를 다룬 논문<sup>9)</sup>은 대표성 위기 논문의 자매편으로서 편역을 통해 왕후이의 문제의식을 연속적으로 소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이 책의 주제는 중국의 역사보다는 현대 세계의 문명, 정치, 경제, 사회운동 등의 영역이다. 대부분 2012년 이후 발표된 글들로서 한국의 『탈정치 시대의 정치』와 유사하게 최근 왕후이의 사회과학적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이상의 편역서 출판에서는 왕후이의 현실 비판과 정치 담론에 주로 중점을 두었다. 초반에는 왕후이의 신좌파 지식인으로서의 왕후이의 면모가 부각되었고 2014년 이후에는 왕후이의 최신 관심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

〈표3〉은 이상의 저서 번역, 논문 편역 서적을 시간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주제 측면에서는 시간 순에 따라 글의 주제가 근대성, 지역 담론, 정치로 이동하고 있으며, 방법 측면에서는 한국을 제외하고 2008년까지는 편역, 2008년 발췌 등 부분번역이 주를 이룬다.

9) 汪暉, “兩種新窮人及其未來”, 『開放時代』, 第6期(2014).

〈표3〉 번역/편역서의 연도순 목록

연도	제목	국가	유형	주제
2003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한국	편역	근대성
2003	China's New Order: Society, Politics, and Economy in Transition	미국 영국	편역	근대성
2005	죽은 불 다시 살아나	한국	완역	근대성
2006	思想空間としての現代中国	일본	편역	근대성
2006	Il Nuovo Ordine Cinese	이탈리아	편역	근대성
2008	El Nuevo Orden de China, Sociedad, Política y Economía en Transición	스페인	편역	근대성
2009	Impero o Stato-Nazione? La Modernità intellettuale in Cina	이탈리아	발췌	흥기
2009	The End of the Revolution: China and the Limits of Modernity	미국 영국	일부 교체	정치
2010	The Politics of Imagining Asia	미국	일부 교체	지역
2011	아시아는 세계다	한국	완역	지역
2011	世界史の中の中国—文革? 琉球? チベット	일본	발췌	지역
2011	La Questione Tibetana tra Est e Ovest	이탈리아	발췌	지역
2011	跨體系社會: 中國歷史中的民族、區域與流動性	싱가포르	발췌	지역
2011	近代中国思想の生成	일본	발췌	흥기
2012	Die Gleichheit neu denken: Philosophie und Politik XII	독일	편역	정치
2014	China from Empire to Nation-State	미국	일부	흥기
2014	절망에 반항하라	한국	완역	루쉰
2014	탈정치 시대의 정치	한국	편역	정치
2015	世界史のなかの東アジア—台湾・朝鮮・日本	일본	발췌	지역
2015	China's Twentieth Century: Revolution, Retreat and the Road to Equality	미국	발췌	정치
2016	世界史のなかの世界 — 文明の対話、政治の終焉、システムを越えた社会	일본	편역	지역/ 정치

『현대 중국사상의 흥기』의 경우는 특정 시기에 편증되지 않고 완역 작업을 하는 한국에서는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또한 한국

과 일본에서는 서구와 달리 최근에도 편역을 함으로써 왕후이의 사상에 대한 선제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앞서도 밝혔듯 산발적으로 발표되는 논문의 일관적인 주제를 포착해서 저자보다 먼저 단행본을 기획하는 적극성을 보인다. 예를 들면, 2015년의 원서 『짧은 20세기』와 2014년의 편역서 『탈정치 시대의 정치』의 문제의식은 동일하지만 역서가 먼저 나왔고 구성도 집약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꾸준히 부분번역을 냈다. 이는 번역 주체의 의도와도 관련이 있지만 왕후이 저서의 출판 스타일과도 무관하지 않다. 왕후이의 저서에서 현대중국의 사상 상황과 근대성 문제, 1989년, 탈정치화 등을 다룬 논문이 중복해서 출현하기 때문에 취사선택은 중복을 피하려는 위한 선택인 측면도 있다.<sup>10)</sup> 그리고 『짧은 20세기』에 대한 일본어판과 미국어판의 선택이 보여주는 판이한 차이는 일본과 미국 지식인이 왕후이 사상에 대한 관심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대체로 한국과 일본 등은 아시아 관련 주제에 관심의 비중을 많이 두었고 서구에서는 체제전환, 평등, 탈정치화와 대표성 위기 등 현대의 체제와 정치문제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2011년부터의 발췌번역과 편역에서 연속성이 보인다. 2011, 2015, 2016년의 번역서를 모두 같은 출판사(靑土社)가 발행했고 공통적으로 세계사를 왕후이 사상을 수식하는 틀로 설정한다. 그래서 2016년 편역서가 출판된 이후 세 번역서를 묶어 세계사 3부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앞의 두 책은 왕후이의 지역 담론에

10) 왕후이 자신의 저서뿐 아니라 중국 내 편서에서도 중복 출현은 빈번하다. 羅崗·倪文尖 編, 『90年代思想文選』(總3卷)(南寧: 廣西人民出版社, 2000); 李世濤 主編, 『知識分子立場: 自由主義之爭與中國思想界的分化』(長春: 時代文藝出版社, 2002); 公羊 主編, 『思潮: 中國“新左派”及其影響』(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등에서 “當代中國思想狀況與現代性問題”가 반복적으로 실렸다.

최근의 책은 왕후이의 사회과학 담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요컨대, 왕후이의 근대성 비판과 지역 담론, 중국 정치문화, 사회과학 담론이 2010년 이전 한국과 일본에서는 아시아에 관한 내러티브, 중국에 대한 성찰로 주로 읽혔고, 서구에서는 현대의 정치사회이론으로 읽히고 있다. 그리고 왕후이의 최근 관심사인 사회과학 담론에 다시 한국과 중국이 주목해서 소개하고 있다.

### III. 왕후이 사상의 형성과 그에 대한 판단

#### 1. 왕후이 사상형성의 이론적 컨텍스트

『절망에 반항하다』(1990) → 『죽은 불 다시 살아나』(2000) → 『현대 중국사상의 흥기』(2004) → 『탈정치화 된 정치』(2008) → 『아시아의 시야』(2010) → 『짧은 20세기』(2015) 으로 이어지는 왕후이 저서의 문제의식은 근대 중국의 문학, 사상에서 출발해서 근대성 문제, 근대사상, 세계체제, 정치 등 보편적 사안을 거쳐 다시 아시아, 중국 등 지역적 사안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주제 변천의 저변에는 세계지성계와의 접촉과 상호 영향이 작동해 왔다.

80년대에 성취한 루쉰연구는 “당시의 사상계몽파를 비판”하면서 체계를 수립했고 “서구의 이성 전통과 비이성 전통 사이에서 루쉰의 정신구조 속의 모순적 요소를 서술한 인생철학파의 대표작”이며 “계몽주의적 루쉰 이해보다 돋보였다.”고 평가받는다.(王富仁, 1999) 그런데 이런 성과의 배경에는 “당시에 소개된 서구의 철학과 미학 이론”이 있었다. 논문에는 슈티르너, 쇼펜하우어, 니체, 키르케고르, 안드레 예프, 아르치바세프, 구리야가와 하쿠손, 실존주의, 해석학, 정신분석학, 리췌허우·린위성의 사상사 이론, 벨린스키·르네 웰렉 등의 문학



이론 등의 영향이 나타나면서 왕후이 루쉰 연구의 역사성을 구성한다.<sup>11)</sup> 즉 왕후이가 80년대 중국의 계몽주의적 루쉰 이해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개혁개방과 그에 따른 문화열의 바람을 타고 서양의 최신 인문학 이론서가 중국에서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독창적인 이론 작업의 배후에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세계체제로 편입하면서 따라들어 온 서구의 사상자원 자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성을 문제 삼고 특히 중국의 근대를 파고든 이후의 저작들에도 그 저변에 서양사상과의 접촉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 스스로가 밝혔듯,<sup>12)</sup> 왕후이는 89년 천안문 운동의 좌절을 딛고 『학인』을 창간하며 근대성 이론과 중국 근대사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 편, 1992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에서 박사후연수와 방문연구를 거치면서 셸러, 만하임 등의 지식사회학, 하버마스 등 프랑크푸르트학과, 푸코, 리오타르 등의 이론저작, 브로델 등 아날학과, 폴라니 등의 저작을 폭넓게 섭렵하면서 근대성과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킬 기회를 가졌다.<sup>13)</sup> 그리고 이 기간의 이론 작업이 90년대 세계체제와 중국의 현실을 비판하는 내재적 동력이 되었다. 그 고민의 결정체가 바로 「현대 중국의 사상 현황과 근대성 문제」(1997)다. 이 글이 한국 학자의 제안으로 그 초고가 1994년 『창작과 비평』에 실리고 수정판이 1998년 일본의 『세계(世界)』지에 실리면서 해외 학자들에게 소개되었고, 중국내 논쟁으로 ‘신좌파’로 규정된 뒤 <표2>에서 보는 것

11) 송인재, “두 개의 교차하는 역사성-복잡성 의식으로 루쉰 분석: 책을 말하다-『절망에 반항하라: 왕후이의 루쉰 읽기』”, 『교수신문』 (2014.7.8)참조.

12) 汪暉, 『나의 사상역정』, 이육연 외 옮김,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파주: 창비, 2003), 참조.

13) 본인의 설명 이외에 왕후이의 정치경제학적 사유에 관한 분석은 하남석, “왕후이(汪暉)의 정치경제학적 사유의 특징—칼 폴라니(Karl Polanyi)와 세계체제론의 수용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77호(2016)참조.

처럼 그 후 후속편인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기원과 그에 대한 비판(2001)과 함께 세계 각지에서 소개되며 중국의 대표적인 '신좌파' 지식인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즉 90년대 이후 왕후이 사상이 세계 지성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의 발전상에 대한 세계적 호기심과 함께 왕후이가 접한 현대 세계체제에 관한 서구의 사회과학 이론이 있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서구 이론이 중국 왕후이 사상의 자양분이 되었고 그 결실이 향후 왕후이 사상이 중국현실의 세계사적 중요도와 맞물리면서 세계적 존재감을 획득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이다.

## 2. 학술성과 공공성에 대한 주목 - 왕후이 사상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평가

수차례의 인터뷰에서 왕후이 자신은 '신좌파'를 꼬리표라고 생각하면서 탐탁찮아하지만 왕후이 저서의 해외판이 출판될 때나 그를 소개하는 글에서 '신좌파'는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동아시아의 비판적 지성으로 간주되던 21세기 초반과 달리 그의 중국 개혁개방 서사인 2010년에 「중국 굴기의 경험과 도전」이 발표된 이후 신좌파에서 국가주의로 '전향한' 지식인이라는 맥락에서 비판이 이루어졌다.<sup>15)</sup> 뿐만 아니라 『아시아

14) 초기 글뿐만 아니라 후속 저작인 *The End of Revolution*에서도 서양이론의 흔적과 이로 인한 친숙함, 유럽 신좌파이론과의 연계 등이 지적된다. Niv Horesh, Jonathan Sullivan, "Examining The End of Revolution: A Foretaste of Wang Hui's Thought", *China Report* 50: 2(2014), pp.151-160

15) 汪暉, "中國崛起的經驗及其面臨的挑戰", 『文化縱橫』, 第2期(2010); "중국 굴기의 경험과 도전", 『황해문화』, 71호(2011). 왕후이의 개혁개방 서사에 대한 국가주의라는 비판은 중국에서는 許紀霖(2011); 錢理群(2011) 등에서 제기되

의 시야』 한국어판이 출판되었을 때 한국 언론은 일제히 중국에 대한 반발 심리를 발동해서 트랜스시스템사회론을 중화주의의 발로로 티베트 문제를 통한 오리엔탈리즘 비판을 소수민족의 독립에 반대하는 정부친화적 발언으로 치부했다. 이러한 평가들은 왕후이 사상에서 더 이상의 비판성이나 일독할 가치를 찾아볼 수 없다는 관념을 형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왕후이 사상에서 견지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비판이나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쉽게 간과된다.

여기서 한국 이외에 왕후이의 저작을 다수 소개한 일본이나 영미권에서는 왕후이의 중국서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그 단면은 해당 번역서의 역자해설과 서평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철저하게 중복 번역을 피하고 기획의도에 따른 발췌번역을 한 일본의 경우를 보겠다. 『세계사 속의 중국 - 문혁, 류큐, 티베트(世界史のなかの中国 - 文革・琉球・チベット)』(2011)과 『근대 중국사상의 생성(近代中国思想の生成)』의 공동번역자 이시이 쓰요시(石井剛)는 ‘신좌파’라는 규정과 거리를 두고 왕후이 사상의 이론적 성격을 해설한다.<sup>16)</sup> 그는 이와 연관지어 그가 ‘신좌파’라는 규정을 거부하는 데는 “상업적 선동을 회피”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

었다. 같은 소재에 대한 비판이 한국에서는 해당 글이 백승욱(2011)을 필두로, 조경란(2013); 이종민(2013); 박민호(2013) 등이 그 맥을 잇고 있다. 그와 다른 견해는 성근제(2011); 송인재(2014) 등에서 제기된다. ‘신좌파’에서 국가주의로의 ‘전향’이라는 비판에는 좌파가 가지는 정파적 친화성이나 호감도를 왕후이의 역사 담론에서 읽을 수 없다는 배신감이 정서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한국, 유럽에서 사용하는 (신)좌파와 90년대 중국 자유주의 논쟁 국면에서 대두된 신좌파의 의미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면 이 같은 호감의 획득과 상실에는 일종의 ‘기표의 오독’이 작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6) 石井剛, “智識生産・主體性・批評空間—汪暉『現代中國思想の興起』日文簡本譯者解説”, 『開放時代』, 第2期(2007), <http://www.opentimes.cn/bencandy.php?fid=323&aid=1538> (검색일: 2016.4.12.).

하고, 그 근거로 왕후이 사상에서 서구 자유주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그 근거로, 하이예크 사상이 왕후이의 근대=자본주의 비판의 주요 대상인 동시에 과학주의 비판의 주된 논거로 사용됨을 거론한다. 아울러 편역서인 『문화와 공공성』에 롤스, 테일러 등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도 지적한다. 이시이는 이러한 왕후이의 선택이 1992~93년에 벌어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에서 북미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비판적 잠재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한국과 중국에서 ‘전향’이 운운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의 판단인데, 정치적 성격 규정보다는 사상 형성의 이론적 맥락에 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시이는 서문에서 일관되게 비판 정신의 학술성을 강조한다. 왕후이를 학술적 곤경에 처하게 한 표절시비에 대해서도 기술적 차원의 비학술성을 비판하는 것이 학술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 대신 “왕후이 한 사람에게 비판 정신의 짐을 지우지 말고, 왕후이의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오늘날 중국 지식 담론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하나의 방식으로 삼아 견고한 학술적 토대의 건인 하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石井刚, 2011)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본에게 중국은 이국적 외부 존재가 아니므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므로, 번역을 통해 일본과 중국 지식담론이 비판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희망을 표명한다.

『학인』 발간 시절의 근대사상 연구 성과가 토대가 된 『현대 중국 사상의 흥기』를 대하는 방식도 학술성을 띤다. 일본에서 『사상공간으로서의 중국』과 『세계사 속의 동아시아』의 번역을 주도한 무라다 유지로(村田雄二郎)는 『현대 중국 사상의 흥기』 초판이 출판되고 얼마 후인 2005년 왕후이를 도쿄대로 초청해서 중국근대사상을 다룬 5~15장을 다루는 강의를 의뢰했고, 초청 기간에 이 책을 소재로 학술회의

와 강연을 개최함으로써 왕후이가 다른 중국근대사상 자체에 대한 학술적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왕후이의 지역 서사에 관한 논평은 왕후이를 “가장 신뢰하는 현대 중국의 사상가”라고 평가한 가라타니 고진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세계사 속의 중국』 서평에서 책의 논제에 보편과 특수이 교차되었다고 파악한다.<sup>17)</sup> 보편적인 논제로는 탈정치화가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지배하는 현대 세계의 주요 현상이라는 점을 거론한다.<sup>18)</sup> 보편적 논제에서 발견되는 중국의 특수한 상황도 지적한다. 그것은 바로 탈정치화 현상이 중국에서는 계급대립을 민족주의, 민족 정체성 등으로 환원하면서 정치문제가 탈각되는 현상이다. 특수한 논제로는 티베트 문제가 관련된 중국의 민족문제, 조공체제를 거론한다. 이 문제에서는 조공체제가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닌 평화와 무역을 보장하는 국제관계라는 왕후이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소개하고 왕후이가 주장하는 트랜스시스템사회의 원리에는 조공에 대한 찬성이 아니라고 선의로 해석하면서 왕후이의 주장에 공감한다. 『세계사 속의 동아시아』 추천사에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과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 모두가 실은 신자유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탈정치화를 극복하고 재정치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왕후이의 과제가 동시에 일본 지식인 자신의 과제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지역 문제가 아닌 현대 정치의 대표성 위기를 다룬 「정치와 사회의 단절(政治と社会の断絶)」에 초점을 두고 역시 왕후이의 문제의식에 공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 일본에서는 왕후이의 학술적 성격과 기초에 대한

17) 柄谷行人, “読書 - 『普通』と『特殊』二つの観点交差”, 『朝日新聞』(2011.3.6)

18) 원저 『亞洲視野』에는 수록되지 않고 일본어판에 수록된 “去政治化的政治, 覇權的多重構成與60年代的消逝”을 의식한 것이다.

관심이 두드러지며, 다른 한편으로 왕후이가 제기하는 정치적 명제를 세계정치와 자국의 상황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보편성을 부여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으로 미국의 경우를 보겠다. 왕후이가 ‘신좌파’라는 ‘꼬리표’를 갖게 한 논문과 그 후속편으로 구성되고 둘을 발행시기의 역순으로 수록한 『중국의 새로운 질서(China's New Order)』의 편집자이자 공동번역자인 시어도어 후터스(Theodore Hutters)는 두 가지 측면에서 왕후이를 반체제 지식인으로 묘사한다. 그에 따르면, 왕후이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신뢰를 배태한 중국의 개혁”과 “중국에서 자유주의적 꿈의 실현(중국이 미국을 모델로 삼아 더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라는 낙관)”을 거부하는 지식인이다.<sup>19)</sup> 아울러 “미증유의 도전 앞에서 만들어진 경제적 진보를 단순하게 묘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왕후이의 지적 시도가 “중국의 무수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일을 구상하는 작업”이라고 규정한다.<sup>20)</sup> 『탈정치화된 정치(去政治化的政治)』(2008)의 영어판 『혁명의 종결(The End of the Revolution: China and the Limits of Modernity)』의 공동번역자 레베카 칼(Rebecca E. Karl)<sup>21)</sup>은 왕후이의 정치 담론이 리쩌허우와 류썬이푸가 제시해서 90년대의 ‘시대정신’처럼 되어버린 반급진 사상 ‘혁명과의 고별’ 담론과 대척점에 서서 버려진 혁명을 호명하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전망을 모색하면서, 왕후이가 “현재에 대한 냉철하고 비판적인 평가와 더 민주적인 미래에 대한 지속적 희망”을 표출하면서 지적이고 정치적인 반대자가 되었다고 규정한다.<sup>22)</sup>

19) Wang Hui, *China's New Order - Society, Politics, and Economy in Transition*, Edited and Translated by Theodore Hutters(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p.38.

20) Wang Hui(2003), pp.38~39.

21) 동시에 *China's New Order*의 공동번역자다.

22) Wang Hui, “Foreword by Rebecca Karl”, *The End of the Revolution: China and*

아울러 정치가 아닌 경제발전에만 찬사를 보내는 중국공산당 집권 20주년 기념사가 바로 탈정치화의 사례라 지적하며 왕후이의 탈정치화 담론에 공감한다.<sup>23)</sup> 그리고 왕후이의 작업이 관련분야 역사가와 사회평론가들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것이라 평하면서 현실에 대한 왕후이의 열정적 개입을 대변하는 담론이 지난 10여 년간의 학술적 작업을 통해 생산된 지적 산물임을 상기시킨다. 다시 말하면, 왕후이의 사상이 공공성과 학술성을 동시에 담보하고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아시아의 시야』의 영어판 『아시아 상상의 정치학(The Politics of Imagining Asia)』에서 역시 편집자이자 공동번역자인 시어도어 후터스(Theodore Hutters)는 서구의 관점에서 탈피한 역사적 내러티브를 높이 평가한다. 그는 왕후이의 ‘중국역사의 서술’이 어느 면에서 폴 코헨의 『중국에서 역사 발견하기(Discovering History in China)』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평한다.<sup>24)</sup> ‘충격-대응’이라는 서구중심주의적 역사관을 비판한 폴 코헨과 서양 근대에서 연원한 민족-국가 지식, 오리엔탈리즘 등 서구중심주의적 시각을 비판하고 그로부터 탈피한 중국역사 서술을 내세우는 왕후이의 관점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은 것이다. 더 나아가 왕후이가 서구 독자들에게 일종의 ‘자기발견의 쇼크(shock of self-discovery)’<sup>25)</sup>를 제안한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유럽인들에게 유럽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나온 지식, 믿음, 세계관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근본적으로 다른 역사적 시간과 장소에 두고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

---

*the Limits of Modernity*(Verso, 2009), pp.8~9.

23) Wang Hui(2009), p.8.

24) 한국어판은 장의식 옮김, 『미국의 중국 근대사 연구』(고려원, 1995). 이남희 옮김, 『학문의 제국주의: 오리엔탈리즘과 중국사』(산해, 2003; 순천향대학교 출판부, 2013).

25) Wang Hui, *The Politics of Imagining Asia*, Edited by Theodore Hutters(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p.2.



능성”이라고 그 의미를 규정한다.<sup>26)</sup> 이러한 견해는 『아시아의 시야』에 다루는 조공체제의 역사적 기억을 과거의 영광에 기댄 제국주의적 욕망으로 읽거나 티베트 문제에서 제기하는 중화민족 다원일체론의 정당성을 소수 민족의 독립을 완강히 반대하는 정권유지 논리로 읽는 경우와 차별화된다. 그것은 왕후이가 제기한 문제제기의 당사자로서 그것을 계기로 자신을 성찰하자고 제안하면서 구현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왕후이의 사상의 토대는 80년대의 이론적 탐색과 정치적 경험, 90년대 초 학습을 통한 세계체제 인식이다. 그리고 사상의 존재감은 중국의 역사와 현실을 소재로 한 담론을 통해 발산되었다. 따라서 그의 사상을 일차적으로 소비한 영역은 해외의 중국학계였다. 중국 내에서 벌어진 사상 논쟁의 영향으로 왕후이에게는 ‘신좌파’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지만, 일본과 미국에서 왕후이의 사상은 ‘신좌파’로서의 정치적 성향에만 국한되어 이해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신좌파’가 정치적 담론의 대상이 아닌 이론적 내포의 탐색 대상으로 진지하게 다루어졌다. 그리고 이론적 견고함은 왕후이가 표방했던 비판정신의 견실한 토대로 제시되었다. 미국의 경우는 왕후이가 중국에서 90년대 들어 등장한 반급진주의의 대척점에 서있는 것으로 정치지형도를 그리는 동시에 왕후이가 추구하는 보다 민주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 전환기 중국에 대한 보다 창조적인 전망 제시에 공감을 표하는 동시에 학술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담보하고 있다고 파악하면서 정파적 판단 일변도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체제라는 컨텍스트에서 기존의 성향(탈정치화, 오리엔탈리즘)과 구별되는 전망을 지닌 중국 서사는 중국 자체에 대한 지적 욕구 충족을 넘어 타자인 외국 학자의 연대감을 이끌어내어 보편적 의

---

26) Wang Hui(2011), p.9.



미를 획득한다. 일본에서는 중국을 완전히 이국적인 존재가 아닌 자기 성찰의 거울로 간주하며 왕후이의 중국서사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보다 깊이 사유하고자 한다. 따라서 왕후이가 제기한 탈정치화의 명제는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공동의 상황에 처한 이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지리적, 역사적으로 서구중심주의로 비판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 자기정체성에 의존한 반발로 대응하지 않고 자기성찰의 기제로 활용하는 태도가 두드러지며, 왕후이 사상에 보편성을 확보해주고 있다.

#### IV. 담론의 생산적인 형성과 소비를 위하여

이상에서 다룬 사례에 따르면 왕후이는 문학, 역사, 사상을 통해 근현대 중국을 꾸준히 사유해왔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그의 사유는 끊임없이 서구의 근대성, 세계체제, 정치철학 분야 이론을 동원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역사, 현실과 서구 이론의 접속을 실천했다. 일본어판의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세계사 속에서 중국, 아시아, 세계를 사유하면서, 가라타니 고진이 말했듯 보편과 특수 교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왕후이의 사상은 현대중국에 관한 것이면서 현대의 사상으로서 보편성을 성취하는 한편 연대감을 불러일으켜 공감을 얻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역사와 현실을 기반으로 한 왕후이의 사상은 중국을 보는 창이자 현대의 세계체제와 관념을 성찰하는 거울로 작동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적극적 이해의 사례를 일본과 미국의 이해방식에서 찾을 수 있었다. 왕후이의 세계적 명망이 중국 내의 정치적 논쟁을 통해 불거진 정파적 라벨과 동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상적인 정파적 대립의 저변에는 지식인으로서의 학술적 전문성과 진지한 작업이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좌파와 우파 또

는 보수와 진보라는 틀에 갇힌 채 정파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엄밀한 이론의 기초 위에서 공존하고 있는 체제에 대한 엄밀한 인식과 창조적 전망 구상을 위해 의구심은 대화로 해소하고 공감의 비중을 확장하는 것이 보다 현대 중국을 매개로 한 담론을 보다 생산적으로 형성하고 소비하는 방향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왕후이 사상의 세계화를 저서, 논문의 번역의 경우에 국한해서 고찰했다. 텍스트 번역과 해제가 아닌 직접적 대화와 강연 등의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면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측면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왕후이의 중국 담론이 오늘날 세계 현실을 배경에 두고 형성, 진행되는 것인 만큼 직접적인 접촉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은 향후 세계체제 내에 대한 유효한 대응을 위한 공감 형성과 공동 행동에 한층 유익하게 작동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종민. 『흩어진 모래』 (산지니, 2013).
- 조경란. 『현대 중국 지식인 지도: 신좌파 자유주의 신유가』 (글항아리, 2013).
- 汪暉 著. 石井剛 譯. 『近代中国思想の生成』 (岩波書店, 2011).
- \_\_\_\_\_. 石井剛. 羽根次郎 譯. 『世界史のなかの中国 - 文革・琉球・チベット』 (青土社, 2011).
- \_\_\_\_\_. 村田雄二郎. 砂山幸雄. 小野寺史郎・譯. 『思想空間としての現代中国』 (岩波書店, 2006).
- \_\_\_\_\_. 丸川哲史 編譯. 『世界史のなかの東アジア-台湾・朝鮮・日本』 (青土社, 2015).
- \_\_\_\_\_. 丸川哲史 編譯. 『世界史のなかの世界-文明の対話, 政治の終焉, システムを越えた社会』 (青土社, 2016).
- \_\_\_\_\_. 김택규 옮김. 『죽은 불 다시 살아나: 현대성에 저항하는 현대성』 (삼인, 2005).
- \_\_\_\_\_. 성근제. 김진공. 이현정 옮김. 『탈정치시대의 정치』 (돌베개, 2014).
- \_\_\_\_\_. 송인재 옮김. 『아시아는 세계다』 (글항아리, 2011).
- \_\_\_\_\_. 송인재 옮김. 『절망에 반항하라』 (글항아리, 2014).
- \_\_\_\_\_. 이욱연 옮김.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창비, 2003).
- 去政治化的政治. 『霸權의多重構成與六十年代的消逝』 (三聯書店, 2008).
- 王富仁. 『中國魯迅研究的歷史與現狀』 (浙江: 浙江人民出版社, 1999).
- Fewsmith. *China since Tiananmen: From Deng Xiaoping to Hu Jintao*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Wang Hui, "Foreword by Rebecca Karl". *The End of the Revolution: China and the Limits of Modernity* (Verso, 2009).
- \_\_\_\_\_. *China's New Order - Society, Politics, and Economy in Transition*. Edited and Translated by Theodore Huter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 \_\_\_\_\_. *The Politics of Imagining Asia*. Edited by Theodore Huter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김창규. “感性的 近代 摸索을 위한 初探 - 汪暉의 중국 현대성 담론 소개”.

『감성연구』, 제11집(2015).

박민호.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대, 동아시아 지식인은 국가를 어떻게 사유하는가? -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과 왕후이(汪暉)의 논의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67호(2013).

박영미. “계몽과 현대성 - 중국 신좌파의 현실인식과 지향”. 『한국철학논집』.

제28집(2010).

백승욱. “중국 지식인은 ‘중국굴기’를 어떻게 말하는가-왕후이의 ‘중국굴기’의 경험과 도전에 부쳐”. 『황해문화』, 72호(2011).

성근제. “왕후이는 타락하였는가?”. 『동아시아 브리프』, 6-4.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11).

송인재. “왕후이의 재정치화 담론 소고”. 『중국과 중국학』, 제22호(2014).

이강규. 『A Critical Review on the Debates between Liberalism and ‘New Left’ in China』.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이선옥. “왕후이의 서구 현대성 이론 반성과 그 의미”. 『중국문학』, 제69집(2011).

조경란. “중국에서 신좌파와 비판적 지식인의 조건 : 왕후이의 ‘중국모델론’과 21세기 지식지형의 변화”. 『시대와 철학』, 제24권 1호(2013).

하남석. 「중국 ‘신좌파’의 사상적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房寧. “影響當代中國的三大社會思潮”. 『復旦政治學評論』, 第4輯(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6).

石井剛. “智識生産・主體性・批評空間—汪暉『現代中國思想的興起』, 日文簡本譯者解説”』, 『開放時代』, 第2期(2007)

時田研一. “中國の ‘新左派’, 自由主義 論争 — 文革の評價をめぐるつて”. 『解放通信』, 第6號(2003).

汪暉. “當代中國思想狀況與現代性問題”. 『天涯』, 第5期(1997).

- 汪暉, “中國崛起的經驗及其面臨的挑戰”, 『文化縱橫』, 第2期(2010)
- 汪暉 지음, 이옥연 옮김, “중국사회주의와 근대성 문제: 개방 이후의 사상조류”, 『창작과 비평』, 겨울호(1994)
- \_\_\_\_\_, 이희옥 옮김, “세계화 속의 중국, 자기 변혁의 추구: 근대와 근대 비판을 위하여” 1. 『당대비평』, 10(2000); “세계화 속의 중국, 자기변혁의 추구: 근대와 근대 비판을 위하여” 2. 『당대비평』 (2000).
- \_\_\_\_\_, 최정섭 옮김, “중국 굴기의 경험과 도전”, 『황해문화』, 71호(2011).
- \_\_\_\_\_, “왕후이(汪暉)의 정치경제학적 사유의 특징—칼 폴라니(Karl Polanyi)와 세계체계론의 수용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77호(2016).
- Niv Horesh, Jonathan Sullivan, “Examining The End of Revolution: A Foretaste of Wang Hui’s Thought”, *China Report* 50, 2(2014).
- 羅崗·倪文尖 編, 『90年代思想文選』 (南寧: 廣西人民出版社, 2000).
- 李世濤 主編, 『知識分子立場: 自由主義之爭與中國思想界的分化』 (長春: 時代文藝出版社, 2002).
- 송인재, “두 개의 교차하는 역사성-복잡성 의식으로 루쉰 분석: 책을 말하다-‘절망에 반항하라: 왕후이의 루쉰 읽기’”, 『교수신문』 (2014.7.8).
- 柄谷行人, “讀書 - 『普通』と『特殊』二つの観点交差”, 『朝日新聞』 (2011.3.6).
- 錢理群, 『回顧2010年(2011)』 <http://www.howvc.com/Html/economy/macro/china-road/86994158773162.html>, (검색일: 2013.12.18.)
- 許紀霖, “近十年來中國國家主義思潮之批判”, <http://www.aisixiang.com/data/41945.html>(검색일: 2013.12.18).
- “China’s New Leftist”, The New York Times 2006.10.15, [http://www.nytimes.com/2006/10/15/magazine/15leftist.html?\\_r=1&oref=slogin](http://www.nytimes.com/2006/10/15/magazine/15leftist.html?_r=1&oref=slogin)(검색일: 2007.3.19).
- Arif Dirlik, China’s Critical Intelligentsia, *New Left Review* 28, July-August 2004, <http://newleftreview.org/?page=article&view=2520>(검색일: 2007.3.19.)

## Wang Hui's Thought in the Context of World Intellectual Society

Song Injae(Hallym Univesity)

### Abstract

Since 1990s, when the systemic transition and vista were concerned by all over the world, Wang Hui criticized the political conservatism and market friendliness of liberalism. Through this activity, Wang Hui has become famous and representative Chinese critical intellectual, so called "New Leftist". Through interpreting the history and reality of current China, Wang Hui proposed his view on the reality of China and world system. The theoretic basis of Wang's thought is the newest western theories on the modernity and system of the world. His some works started to translated to several languages since late 1990s, his thoughts had a start of communication with world intellectual society. Although "New Leftist" was the main label to understand Wang, but the academic basis under his thoughts had focus in some cases. This made Wang's unique thoughts understood that combines publicity and academic character. Furthermore, these understanding extended to the sense of solidarity, reflection on the stereotype which they had not concerned. Eventually, Wang's thoughts can get the unique view on the history, reality and prospect of China and world, demonstrate universality to explain the reality of the world, beyond the labeling by particular faction.

Key words

Wang Hui, Translation, New Leftist, World Intellectual Society, Publicity, Academy